Meritz Financial Daily
| 2025. 10. 22 (Wed)
meritz 메리츠증권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02. 6454-4905
kunhee.kong@meritz.co.kr

News

950점은 돼야 은행 주담대 가능…저신용자 문턱 더 높아졌다
뉴시스 https://zrr.kr/2dfC7k

5대 은행이 지난 8월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1년 전(939.4점)보다 10.6점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초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신규 대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

"회장이 이사회에 자기사람 심어" … 금융지주 지배구조 경고한 금감원
매일경제 https://zrr.kr/0oicyp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수시 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원장은 또 금융지주 이사회가 현직 회장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해 향후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우리금융, 쉽지않은 '회현타워' 매각…순항 중이던 자본관리계획 변수로
이데일리 https://zrr.kr/ktcwll

우리금융그룹은 핵심 부동산 자산 중 하나인 서울 중구 회현동 디지털타워의 매각을 추진 중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대형 오피스 빌딩의 '통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할 시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

대출자에 교육세 인상분 떠넘기기 막는다
이데일리 https://zrr.kr/dbFfGh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법정 출연금에 이어 정부의 교육세 인상분도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

예금보험료 등 부담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이를 차주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할 예정

"국장은 안 믿어" 곱버스 탄 개미들…역대급 불장에 '아뿔싸'
한국경제 https://zrr.kr/R0CNh6

코스피지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곱버스'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순매수하는 미국지수형 ETF 규모도 코스피지수 추종 상품을 크게 상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해석으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

'불장'에 투자자예탁금 최고치 또 경신…빚투 24조 돌파
연합뉴스 https://zrr.kr/WDulAp

투자자예탁금은 80조6천257억원으로 종전 최고치인 13일의 80조1천901억원 기록을 갈아치웠고, '빚투'(빚내서 투자)도 24조원을 넘어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청년층과 50~60대 중심으로 빚투가 대폭 늘고 있다며 무리한 차입 투자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빚투 증가 양상이 계속

IFRS재단, 이르면 내달 '삼성생명 회계 논란' 해석낸다
한국경제 https://zrr.kr/sPtlIJ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

글로벌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

보험 자회사도 '장기임대' 가능…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1 https://zrr.kr/ag2QJ4

앞으로 보험회사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추가

또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도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정비

가상자산업도 벤처기업 시대…27곳 중 7곳 인증 완료
전자신문 https://zrr.kr/fbtSeg

27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 7곳이 벤처확인기업으로 등록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면 정부가 기술력과 혁신성을 공식 인정한 만큼, 투자자 신뢰 확보와 자금 조달에 유리

이찬진 "내년 1분기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 안 보고하겠다"
뉴스1 https://zrr.kr/t8YIL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

미국 SEC와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부연하며 "다른 나라들의 선행 경험들을 전수 받겠다"고 발언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